

유튜버, 장비 필수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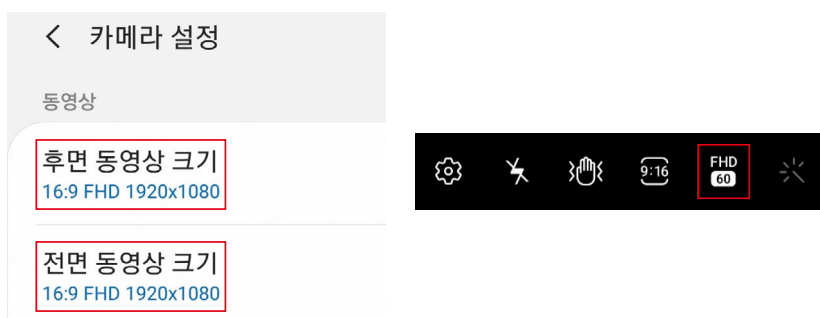
지난 9월 호를 따라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 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베테랑 유튜버가 사용하는 값비싼 촬영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장비만 활용해 영상을 촬영해 보고, 기술을 익혀 가면서 필요한 장비를 하나둘씩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라면? 스마트폰 하나면 끝!

화질도 좋고 색감도 좋은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브랜드의 고급 카메라를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장비를 사더라도 처음에는 조작 기술부터 촬영하는 과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이 편리한 스마트폰이 제격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권장하고 있고, 요즘 스마트폰은 카메라 촬영 화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도 스마트폰만을 활용해 영상을 찍는 유튜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좋은 품질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촬영 전 영상 해상도를 체크합니다. 해상도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하면 화질이 너무 낮아서 영상의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반대로 화질이 너무 높으면 스마트폰 메모리가 꽉 차버리거나 영상 파일의 크기가 커져 편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최근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적정 사이즈는 ‘FHD 1920×1080(가로×세로 픽셀 수)’입니다.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해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뒤 ‘후면 동영상 크기’와 ‘전면 동영상 크기’를 각각 ‘FHD 1920×1080’으로 설정하거나 기기에 따라 스마트폰 카메라 상단의 해상도 아이콘을 선택해 ‘FHD 6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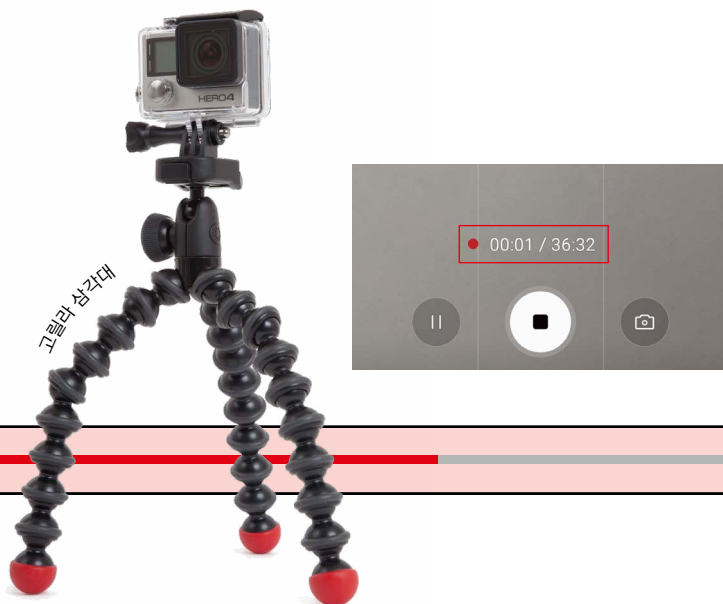


둘째, 되도록 후면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전면 카메라 렌즈는 크기가 작아 후면 카메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찍어준다면 좋겠지만, 혼자 촬영할 때는 후면 카메라로 촬영 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면에 거울이 달린 미러 셀카봉을 구입해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야 할 때는 스마트폰 액정을 덮고 있는 보호필름과 전면 카메라 렌즈 주변의 유분기나 기타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은 후 촬영합니다.

셋째,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촬영해야 합니다. 일반 셀카봉 또는 스마트폰을 직접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미세한 손 떨림으로 촬영 중 영상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해 '동영상'을 선택하고, 좌측 상단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른 뒤 '동영상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케이스에 그립톡을 부착해 그립톡에 손가락을 고정하고 촬영하면 스마트폰을 놓치거나 화면이 흔들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촬영할 때는 체력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영상을 찍기 위해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릴라 삼각대'는 삼각대 다리를 자유자재로 구부려 조정할 수 있으면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어디든 매달아 놓고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중에서 2만~3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녹화 시작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촬영되지 않거나, 시작 시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스마트폰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0초, 1초, 2초... 녹화 시간이 카운트되는 것을 확인하고 촬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품질 영상을 구현하는 빛과 소리

값비싼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부품들을 추가로 마련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장비는 바로 조명과 마이크입니다. 사진과 같이 영상에서도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활용하면 피사체를 보다 밝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어 훨씬 깔끔한 느낌의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빛’만큼 중요한 것이 ‘소리’입니다.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할 때는 마이크를 활용하면 주변 잡음을 잡을 수 있고, 보다 생생한 목소리가 영상에 담기게 되어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온라인에서 ‘개인방송 장비’ 또는 ‘유튜브 장비’로 검색하면 셀카봉 삼각대와 마이크, LED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 장비세트를 4~6만 원에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한 장비만 따로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면, 운영하는 채널을 연금지 ‘GEPS유튜브’에 소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52~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향성 마이크



LED조명

글 / 홍보실 양유경
참고 / 유튜브 채널 <유튜브 훈련소>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촬영하는 방법’ 편

